

현행 종교과 교사 양성의 실태와 개선방안*

김 귀 성

원광대학교

〈요 약〉

이 논문은 종교교사 양성과정의 실태를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관련 현행 법규 제도적인 측면과 실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문제점과 아울러 발전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현재 종교교사양성은 종교관련 대학의 관련 학과에서 교직과정을 통해서, ○○교육과를 통해서 교육대학원의 종교교육전공 등 세 가지 통로를 거쳐 이뤄지고 있다. 어느 경우든 관련 규정에 의해 현재는 전공(42학점-기본이수과목 5과목 14학점이상 포함)+교직(20)을 기본적으로 요구받고 있다. 현재 종교교사양성 기관으로 인가를 받은 기관은 대략 36개 기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종교교사양성 과정에 문제점으로는 표준화된 교육과정의 미흡, 교과교육 영역, 교육실습, 평가체제 등이 미비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향후 이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하면 첫째, 제도적인 면에서 종교교사양성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종교교사 양성과정에 표준화된 교육과정 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사양성 대학과 중등학교 현장의 연계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종교 교과교육 영역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다섯째, 교육실습에 대한 체계화된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이 요구된다. 여섯째, 종교교사 양성과정에 대한 평가체제 정비가 요구된다. 끝으로 교사양성과정에 대한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

핵심 주제어 : 종교교사, 교사양성, 교사양성 교육과정, 교사양성 발전방안,

* 이 논문은 2008년도 원광대학교의 교비 지원에 의해서 수행됨.

I. 서 론

일반적으로 “교육의 질은 교사에 의해 결정된다.”는 말이 있다. 교육에 있어서 교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교사양성 과정에서부터 임용, 재교육 등에 이르는 일련의 교사양성 체제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그 개선방안도 제안된 바 있다¹¹⁾. 특히 양성과정에서 수요와 공급의 지나친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¹²⁾. 이는 매년 중등교원 임용에서 모집인원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은 갈수록 높아가는 현실이 잘 대변해주고 있다. 그러나 종교교사의 경우는 다른 교과에 비해 임용은 물론 종교교사 양성 자체에 무엇이 문제인지, 왜 그런 문제가 야기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조차도 활발하게 이뤄진 적이 없다. 최근의 종교계 사학에서 종교교육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비해 이 부분은 연구도 논의도 미미한 편이다. 물론 소수의 개인논문과 연구보고서를 발견할 수 있다¹³⁾. 그렇지만 적어도 관련 학회나 정부 차원에서 종교교사 양성문제를 논의한 결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물론 1990년 이후 몇 차례 서울대학교 등에서 종교 교사자격을 위한 연수가 있었지만 부정기적인 것이었다. 이처럼 종교교사 양성 문제가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데는 아마도 다른 교과에 비해 그럴 필요성이 강하게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행 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 교사양성 및 임용에 등이 상대적으로 관심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러나 최근 직접적으로 종교 교사양성에 관한 공적 논의의 계기를 갖게 된 것은 아마도 교육과정 평가원이 주축이 되어 한국종교교육학회에 위탁한 “종교과목의 교사자격기준 개발과 평가영역 상세화 및 수업능력평가 연구”(2008)라는 과제라고 생각된다. 물론 이런 유형의 과제는 종교 과목 외에 여타의 모든 교과 영역에서도 이뤄지고 있지만 종교교사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여하간에 이제 종교교사 양성 및 임용에 대해서도 사회적 관심과 논의의

11) 한국교육학회는 1997 연차 학술대회에서 “교사양성 교육과정의 전문성 확보”라는 주제로 교사양성 교육과정을 비롯하여 한국교원교육학회 등에서 논의가 다수 진행된바 있음. 정부의 교직종합발전방안(2001), 교원양성체제개편 종합방안(2004), 교원양성제도 개선방안(2006), 교원양성 및 선발제도의 개선방향(2007)을 근거로 최근 교사자격 무시험검정 기준 강화 관련 법령 개정을 고시한 바 있음(교원양성연수과 - 2102.07.12.31)

12) 2007년 우리나라 중등 교원양성 기관은 사범대학(40), 교육과(56), 교직과정(152), 교육대학원(134) 등과 같고 대학에서 발급하는 중등 2급정교사 자격증은 22,668이다(‘07교육통계연보, 2007: 883). 2008, 1월 11일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공한 ‘전공과목의 교사자격기준 개발과 평가영역 상세화 및 수업능력평가를 위한 워크숍 자료’(114-115쪽)에 의하면 매년 모집인원에 비해 응시자가 증가하여 경쟁률이 가중되고 있음.

13) 김철주·고병철, 「종교교사 양성 및 연수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21-2(서울: 한국교원교육학회, 2004), 강돈구, 『종교교육의 현황과 개선방안』 (서울: 문화관광부·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54-68쪽

대상이 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런 노력은 종교교사 자격기준을 명시하는 일로서 종교교사 양성과도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다.

한편 이런 종교교사 양성과 관련된 논의 외에도 간접적으로 종교교사 양성에 대한 과제는 정부의 교원양성에 대한 각종 평가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가능하다. 예를 들면 최근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 지정(2008)은 종교지도자를 양성하는 법인에 대한 정부의 인정시스템 가동과 관련된 것이라든지, 일반대학 교직과정 평가(2002년 실시, 2008- 2009년 예정), 교육대학원 평가(2005) 등은 간접적으로 확인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런 평가의 본래 목적이 종교교사양성을 대상으로 삼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반대학의 교직과정의 평가는 교직과정의 교육활동 및 운영 실태를 체계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교원양성기관으로서 교육의 질을 진단하고 개선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지만¹⁴⁾ 종교교사 양성이 대부분 교직과정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관련이 있다.

엄밀히 말하면 그간 종교교사 양성이 관심의 대상이 되기 시작한 것은 제4차 교육과정 때부터이다. 이때부터 종교과목이 자유선택과목으로 설정되어 정규교육과정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그 후 5차 교육과정에서 교과서의 발행과 종교교사 자격연수가 이뤄진 바 있다¹⁵⁾. 일선학교 종교교사를 위한 종교교육과정 해설서가 발행된 것도 제6차 교육과정에 이르러서 비롯되었다. 그 밖에 각 대학의 종교 관련 학과에도 종교교사를 양성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설 운영되고 있으나 여타의 표시 과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 종교교사 양성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준으로 관련 대상을 조사해보아야 하는데 본고에서는 그동안의 종교교사 양성과정에 대한 문제를 현행 법규·제도의 측면과 실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으로 제한하여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따라서 종교교사의 임용 및 재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별도의 논의에 맡기기로 함을 밝혀둔다.

II. 종교교사 양성 현황과 과제

1. 종교 교사 양성 관련 제도

일반적으로 중등학교 교사 자격을 취득하는 길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나뉘볼 수 있

14) 한국교육개발원, 『2008.9년 일반대학 교직과정 평가편람』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08), 4-9쪽

15) 종교2급 정교사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자격연수는 교육부가 1990년에 서울대학교에 종교교사 연구과정(1차) 개설(90여명의 교사들에게 종교2급정교사 자격 부여)과 1995년 같은 연수과정(2차)을 개설(약50여명에게 종교2급정교사 자격을 부여), 2000년도에는 서울대학교 사대 임시 중등교원양성소에서 종교교사연구과정(3차)을 개설 운영한 바 있으며 1급 정교사 자격연수는 한신대학교(2000년)와 서울대학교 부설 중등교육연수원(2001.12.18-02.2.6)에서 각각 실시된바 있음(김철주·고병철, 앞의 글, 241-242쪽).

다. 하나는 사범계 대학에 소속된 학과에서 해당 표시과목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교육과에서 표시과목의 교사가 양성되는 경우이다. 둘은 비사범계 대학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하여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끝으로 교육대학원에서 관련 전공을 이수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등이다. 물론 교육대학원의 경우에도 학부의 관련 학과에서 소정의 과목 및 학점을 이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종교교사 양성과정의 경우도 크게 이런 틀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첫째와 두 번째 사례는 현재 모두 전공과목 42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 포함)+ 교직과목 20학점 이상,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의 평균 성적이 각각 80점 이상인 자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런데 두 번째 사례에서 즉, 비사범계에 소속된 학과 학생이 종교교사 자격을 취득코자 하는 경우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는 비사범계의 교직이수자를 입학정원의 10%로 조정함으로써 실제로 종교교사 자격을 취득코자 교직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인원이 대폭 감소될 전망이다. 그리고 교육대학원에서 종교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석사학위와 교사 자격을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된 경우로 이때도 역시 교원 자격의 최소조건은 충족해야 한다. 또한 교육대학원의 경우 석사학위 취득의 기본 조건인 24학점 취득이 교사자격 취득을 모두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전적 대학에서 이미 교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조건을 어느 정도 충족한 경우에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교원 자격을 대폭 강화하는 일련의 교원자격 기준을 공포한 바 있다¹⁶⁾. <표 1>과 같이 적어도 중등학교 종교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전공이수 학점을 50학점(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기본이수학점 21학점 이상 포함)+교직과목 22(이론14+실습4+교직소양4)를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 고시(2007-161호)에 의하면 위의 개정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A-1. 교직이론 14학점이상(7과목이상):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그밖에 교육이론에 관한 과목(6조 ①)

A-2. 교직소양과목 중 ‘특수아동의 이해’는 ‘특수교육학 개론’과 ‘영재교육 관련 영역을 포함하여야 하며 교직실무는 교직윤리, 사회변화와 교육, 학생문화, 학급관리와 학생지도’ 등 교사로서 학습지도 영역 이외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영역을 포괄하여 주제별로 운영하여야 한다(6조②).

A-3. 교육실습 중 교육봉사활동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또는 학력인정시설이나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시설)에서 인정한 보조교사나 봉사활동 또는 참여관찰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1학점 당 30시간 이상

16) 최근 정부는 ‘교원정책개선방안실행계획(2006.11.17), 교원자격검정령개정령(대통령령 제20455호, 2007.12.20),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2007.12.31). 교육인적자원부 고시제2007-161호(2007.12.31)등을 공고하고 이를 담은 공문(교원양성연수와 2102 2007. 12. 31)을 보낸바 있음.

〈표 1〉 종교 2급정교사 자격(무시험검정) 취득 기준

구 분	현 행	개 정 안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비 고
A. 교직	총20학점 이상	총22학점 이상	
A-1 교직이론	14학점 이상	14학점이상	
A-2 교직소양과목	-	4학점	신설
A-3 교육실습	2학점	4학점	증설
B.전공과목의 이수기준	총42학점이상	총50학점이상	증설
B-1 기본이수과목 및 학점	14g가점(5과목)이상	21학점(7과목)이상	
B-2 교과교육영역	4학점(2과목)이상	8학점(3과목)이상	
C. 성적기준	-	졸업평균성적 75점 이상	

으로 하되 세부기준은 대학에서 정한다(6조 ⑤).

B-2. 중등교사 자격을 위촉하는 경우 전공과목내에 교과교육영역을 8학점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제3조 ③). 위항에 따른 교과교육 영역에는 표시과목별로 교과교육론(2학점 이상)과 교과논리 및 논술에 관한 과목(2학점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후자는 과목별 논술교육 뿐만 아니라 과목별 창의성발달 지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기타 교과교육영역으로는 '교과별 교수법, 교과별 교육과정, 교과별 평가방법론 등을 대학별로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제3조 ④).

그 다음으로 종교교사양성 제도와 관련하여 주목할 바는 중등학교 현장에서 “종교”과목을 가르치고 배우는 준거인 현행 중등학교 교육과정과 대학의 종교 교사양성 교육과정 및 학교현장의 실제 교육과정간의 부조화이다. 종교교사 양성은 양성 기관과 중등학교 현장 및 실제 교육과정 간에 상호 유기적이고 밀접한 관련을 맺고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상 이런 부조화가 불가피하게 묵인되고 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 원인으로는 먼저, 현행 중등학교 종교 교육과정은 외형상 종교학적 측면과 종교 신앙적 측면이 공유되어 있지만(목차를 보면 인간과 종교, 종교경험의 이해, 서로 다른 종

〈표 2〉 중등학교 교사자격 종별 및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학부	현 행	개정	비 고
종교 (Religion)	종교교육, 종교학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 학과)	종교교육론, 종교학개론, 종교현상학	좌동+종교 와 문화(신설)	
		종교철학, 한국종교, 종교사회학 (또는 종교인류학), 종교심리학, 세계종교(또는 종교사, 또는 비교종교학), 현대종교, 종교와 과학, 종교학사.		

교적 전통, 세계종교와 문화, 인간과 자연에 대한 종교적 이해, 한국종교와 문화, 종교공동체, 특정 종교의 전통과 사상 경전, 교리, 역사 등으로 구성됨)종교교과 설치의 합법성이 지니는 모호성, 종교교육내용의 모호성, 종교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호성¹⁷⁾이 지적 되고 있다. 두 번째로 중등학교 현장에서 활용되어야 할 교과서가 종전에 비해 변화는 확인되지만 아직도 타종교에 대해서는 여전히 호교론 적이고 배타적인 관점이 극복되지 못하고 있다¹⁸⁾. 뿐만 아니라 종교 교사들이 균형 잡힌 종교교육의 목적관을 갖지 못하고 교과서가 학교현장에서 외면당하고 있음¹⁹⁾을 지적하기도 한다. 결국 이는 정부가 고시한 현행 중등학교 종교과 교육과정과 종교교사 양성기관 및 학교현장의 교육과정 간에 일관성을 찾기 어렵다는 말이다. 이로 인하여 교육과정, 교과서, 현장의 교육이 별개로 이뤄지고 있어서 종교교사 양성에도 적지 않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적어도 정부가 고시한 교육과정에서는 종교학적 관점과 특정 종교 신앙적 관점이 어느 정도 균형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종교교사 양성과정은 소수의 종교학적 관점을 지향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특정 종교의 입장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들 간에 괴리를 부인하기 어렵다.

2. 종교교사 양성 기관

현재 종교교사 양성기관을 든다면, 대학의 종교학과, 종교교육과, 특정 종교관련 학과, 종교문화학과, 교육대학원의 종교교육 전공 등으로 대별된다. 이들 종교 교사 양성 기관을 도표로 제시하면 <표 3>과 같다. 물론 종교계 대학이라고 해서 모두 종교 교사양성을 담지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로부터 교직과정 인가를 얻어야 한다. 그런데 양성기관 가운데 특정 종교를 배경으로 하지 않는 종교학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특정 종교를 배경으로 한 경우가 지배적인 것은 사실이다.

이상의 종교교사 양성 기관을 교직과정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

- I. 특정 종교 배경을 갖지 않는 학과(종교학)의 종교교사 양성기관: S대 종교학과
- II. ○○교육과의 양성기관: C대 기독교교육과
- III. 특정종교를 배경으로 한 종교교사 양성기관: 불교학과, 기독교학과, 신학과, 원불교학과.
- IV. 교육대학원의 종교교육 전공: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정별 특성에 따라 분류해보면 대두분이 교직과정을 통해 양성되는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17) 정진홍, 「제7차 교육과정과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13(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1), 5쪽.

18) 김귀성, 「제7차 교육과정과 종교 교과서 개발」 『종교연구』 28(서울: 한국종교학회, 2002), 141쪽.

김귀성, 「종교교재개발의 과제와 전망」 『종교교육학연구』 22(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6), 137쪽.

19) 조영관, 「한국 가톨릭 중등학교 종교교육의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 가톨릭 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8) 99-100쪽,

〈표 3〉 종교교사 양성 기관(대학 및 교육대학원)

종교별	양성기관(대학)	교육대학원	계
불교	동국대, 위덕대	동국대교육대학원(종교교육)	3
개신교	감리교신대, 강남대, 고신대, 그리스도신대, 나사렛대, 목원대 배제대, 백석대, 삼육대, 서울신학대, 성결대, 연세대, 영남신학대, 이화여대, 전주대, 총신대, 침례회대, 한남대, 한신대, 한일장신대, 협성대.	연세대교육대학원(종교교육) 관동대교육대학원(기독교교육) 장로회신대교육대학원 (기독교교육) 총신대교육대학원(기독교교육)	25
가톨릭	가톨릭대, 대구가톨릭대, 서강대.	가톨릭대 교육대학원(종교교육)	4
성공회	성공회대		1
통일교	선문대		1
원불교	원광대		1
대순진리회	대진대		1
계	30	6	36

* 자료의 출처: 2003학년도 일반대학 교직과정 평가대상 및 2005년도 교육대학원 평가결과보고서, 교육부의 교육통계연보 2007, 각 대학 홈페이지 등에 근거하여 추출함²⁰⁾.

3. 종교교사 양성의 과제

우리나라 중등교원양성에 문제점으로는 교원양성 프로그램의 전문성미흡,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평가 감독체제미흡, 교원수급불균형 및 과정별 특성화미흡, 교직 적격자 선발체제 미흡, 교직입직 기회의 제한 등²¹⁾을 들 수 있다. 종교교사라는 특정 표시과목의 교원자격을 부여하는 교원양성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같은 맥락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종교교사의 질 관리 체제 확립, 프로그램의 전문성, 평가제도 등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그 하위 내용으로는 먼저, 질 관리 체제의 확립에는 자격기준의 정비, 교육과정의 표준화 등이 프로그램의 전문성에는 정부가 제시한 중등학교 교육과정과 교원양성기관 그리고 현장에 어느 정도 일관된 교육과정의 수립, 교육실습의 내실화, 교과교육의 전문화, 등과 평가체제의 확립에는 평가인증제의 도입, 검정위원회의 활성화 등을 들 수 있다. 실제

20) 『2002년도 일반대학 교직과정 평가보고서』, 『2005년도 교육대학원 평가결과보고서』, 2007년 『교육통계연보 2007』 등에 의하면 2007년 일반대 교직과정 127개 대학, 54448명 이수중, 비사계(교대원 교직과정) 99개 대학원 12,982명 이수중임. 교직발전기획과- 470(08. 4. 15)공문에 의하면 08, 09년 교직과정 평가대상 기관이 명시되어 있음.

21) 주영주 외, 『이화교원교육 기준개발연구』(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시범대학, 2006), 20-24쪽.

로 2008학년도-2009학년도 교직과정에 대한 정부의 평가영역 및 항목 기준을 보면, 교직부 경영, 교육과정 및 수업, 교수 및 학생, 교육여건 등 4개 영역 9개 평가부분, 1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는 주로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표준화된 교육과정의 미흡을 들 수 있다. 엄밀히 말하면 교직과정 운영학과는 본래 학과의 주된 목표가 교원양성은 아니다. 종교교사양성 학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그렇지만 교직과정을 통해서 교사양성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어떤 교사를 양성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설정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구체적인 목표설정을 확인할 수는 없고 단지 최소한 관련 규정에 의하여 교사를 양성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가 바로 기본이수과목의 설정과 운영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양성기관들이 이들 과목을 어떻게 설정하여 운영하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제기된 문제점으로는 대체과목의 상호교환기준이 분명하지 않아 종교교사 양성프로그램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기본이수과목과 그에 대한 대체과목이 이질적이어서 기본이수과목을 이수한 종교교사 지망생과 대체과목을 이수한 종교교사 지망생 사이에 질적인 차이가 만들어 질 수 있다는 점 등²²⁾을 든바 있다. 실제로 그 사례를 제시하면 <표 4>와 같다.

이런 문제점은 다른 말로 하면 종교교사 자격증을 부여하는데 표준화된 교육과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반증이다. 비단 기본이수 과목 뿐만 아니라 전공과목(일반교육학, 교과내용학, 교과교육학) 전반에 걸쳐 특정 종교에 편향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기 때문이

〈표 4〉 기본이수과목의 대체이수 사례

사례(교원양성대학)	기본이수과목(교육부)	대체기본이수과목(대학)
K 대학	종교학개론	종교학개론
	종교현상학	예수의 교훈과 사람, 교회와 사회윤리
	세계종교	비교종교학, 근현대 세계와 기독교 역사
	현대종교	현대기독교사상
	한국종교	한국교회사
	종교사회학	예언자와 사회
Y 대학	종교교육론	기독교교육학
	종교철학	철학과 종교
	종교사회학	기독교윤리와 사회문제
	종교심리학	종교심리학
	세계종교	세계종교와 한국종교

22) 강돈구 외, 『종교교육의 현황과 개선방안』 (서울: 문화관광부·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59쪽.

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종교교사양성 기관들의 본래 목적이 교사양성이 아닌 종교 성직자 양성에 두고 있다. 따라서 교사양성은 부가적인 목적이 되다 보니 소수를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는데 현실적으로 적지 않은 부담요인이 된다. 이에 따라 파생되는 문제점이 교원양성에 걸맞은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이 어렵다는 점이다.

각 대학에서 운영되는 기본이수 과목 내지는 전공과목 현황을 보면 <표 5>와 같다.

<표 4>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대학에서 종교교사 양성과정이 특정 종교에 배경을 전제로 하여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종교학과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에서 종교교사 양성은 특정 종교에 편중된 교육과정이 지배적이라면 균형 잡힌 종교교육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이다.

이미 앞서 지적된 바와 같이 기본이수과목 마저 대체 이수하는 상황에서 기본이수과목과 대체과목 간에 전혀 이질적인 과목을 설정하여 이수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별다른 문제가

<표 5> 종교 교사양성에 요구되는 기본이수과목 및 교과내용학 비율

양성기관(대학/전공)	기본이수과목	전공과목 내 교과내용학 비율
N대학 신학 전공	종교학, 종교교육론, 종교철학 종교사회학, 비교종교학	30개 과목 중 27개 과목 기독교(90%)
C대학 기독교교육	종교학, 종교사회학, 종교철학, 비교종교학, 종교교육론	59개 과목 중 54과목 기독교(92%)
M대학 신학부	종교학, 종교사, 비교종교학	63개 과목 중 59과목 기독교(94%)
S대학 종교학	종교학, 종교현상학, 종교철학, 한국종교, 종교사회학, 종교심리학, 세계종교	특정 종교에 배경을 두지 않음
H대학 기독교학	종교학개론, 종교심리학, 비교종교학 현대사회와 종교, 종교학사	33개 과목 중 24개 과목 기독교(73%)
HJ대학 기독교교육학	종교학사, 한국종교, 종교인류학 세계종교, 현대종교론, 종교철학, 종교사회학	43개 과목 중 36과목 기독교(84%)
HS대학 신학과	종교심리학, 종교학개론, 한국종교사, 종교철학, 종교사회학	81개 과목 중 76과목 기독교(94%)
Hs대학 신학과	종교학, 종교사, 비교종교학	44개 과목
CS대학 기독교교육과	종교사, 종교학, 비교종교학	17개 과목중 14과목 기독교(82%)
YH대학 기독교학부	기독교교육학, 철학과 종교, 기독교윤리와 사회문제, 종교심리학, 세계종교와 한국종교	34개과목 중 29과목(85%)
K대학 종교학과	종교학입문, 종교문헌연구, 한국종교사	35개과목 중 28과목 가톨릭(80%)

되지 않는 상황이다. 설사 기본이수과목을 설정해서 운영한다 할지라도 수업계획서나 학생과의 직접적인 확인이 전제되지 않는 이상 이 역시 불투명하다.

둘째, 교과교육영역의 미비를 들 수 있다. 교원양성 관련 규정에 의하면 교사양성과정에서 어떤 교과목의 경우에도 교과교육 관련 과목이수를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종교교사 양성과정에서 교과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인적 자원도 부재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다뤄지는 교육내용도 천차만별이 되어 정작 현장과 관련된 교과교육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어쩌면 이는 종교교과교육에만 국한되는 문제라기보다는 교원양성 과정 전반에 걸쳐 함께 고려되어야 할 과제임에 틀림이 없다. 관련 법규에 의하면 현행 교과교육영역은 두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최소한 교육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간, 대학 내 담당교수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례 1> D대학의 교과교육 영역(종교교재연구 및 지도법) 교수-학습계획서

1. 목표: 종교교육제도론 종교교재론, 종교교과과정론, 종교과 교수방법론 등을 다룸.
2. 주별 내용: 교과교육으로서 종교, 종교교재의 개념과 성격, 종교교과과정의 구성원리, 종교(불교)교재분석과 평가, 교재의 종교교육학적 비교평가, 종교과 교수-학습과정의 전개, 학습지도안의 연구발표와 평가, 종교교육평가방법, 종교교사론, 불교종립학교의 종교교육 현황과 과제 등.

<사례 2> D대학의 교과교육 영역(종교교재연구 및 지도법) 교수-학습계획서

1. 목적: 중등학교의 종교교사로서 정해진 교재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효율적인 지도법을 연구하고 숙달한 재 중등학교의 종교현장에서 사용되는 불교와 기독교의 교재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분석하고 이해하며 가장 바람직한 교재의 원형을 모색해본다.
2. 주별 내용: 종교교과서 종교(불교)를 중심으로 교안작성 및 교생실습 실연

<사례 3> W 대학의 교과교육 영역(종교 교과교육론) 교수-학습계획서

1. 목표: 교과교육의 이론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 타종교에 대한 배타성 극복의 방법연구, 교과운영의 실제적인 지도전략 학습, 종교교과교육의 지도계획 수립, 학습내용의 조직과 학습모형 개발
2. 내용: 교과교육의 학문적 이해, 교과교육학의 구성 체계, 교과내용의 구조화 및 조직의 원리, 지적 및 성격형성으로서의 교과교육, 7차 교육과정의 종교교육에 대한 이해, 종단별 종교교과의 운영현황과 필요성, 교과교육지도, 종교교과의 학습지도원리와 실제, 종교교육 교육안 작성 발표, 교육매체 이용, 종교교육에서 역할놀이 학습모형, 평가방법론

<표 4>같은 사례는 비교적 종교교과교육 영역의 성격에 근접하려는 노력의 일단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타교과에 비해 교재개발도 이뤄지지 않은 터에 강좌를 담당할 사람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고 실제 강좌 운영이 어떻게 이뤄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엄밀히 말하면 종교 교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교과교육을 전공한 인적 자원이 미

〈사례 4〉 Y대학의 철학-종교교육 교육론 수업계획서

만남	수업목표	수업내용	교안 발표자
1	첫 만남, 자기소개 및 수업구성논의	철학 없는 철학 책들여가기	
2	<교과교육의 방향성>	(1) 살아있는 교과목으로 가르치기	
3	I. 들어가기: 철학과 종교교육의 만남	(2) 지혜/사랑/생명 아우르기	
4	II. 철학-종교 교과교육론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3) 다시 쓰는 자아실현과 인격완성	
5		(4) 해외 철학교육동향과 한국의 철학교육	
6	<교과교육의 방법론>	(5) 교실 안에서의 대화와 토론(학습모형의 유형 등)	
7	III. 철학적 탐구공동체 교실	(6) 비판적 창의적 사고(사고력 훈련의 유형들)	
8		(7) 배려의 사고와 여성적 사고(교육현장에서 여성성)	
9	IV. 이야기 교과서	(8) 맛있고 재밌는 읽을거리 구성(교재 유형과 나 의 교실에 맞는 교재)	
10		(9) 언어와 삶의 변화(인문학적 교실의 특수성)	
11		(10) 철학적 검허와 선생님(교사 역할과 정체성)	
12	V. 중재재로서 교사		
13	<교과교육의 꿈>	(11) 제도권과 비제도권 교육을 넘어서-철학 목 욕당, 철학마당, 철학교육 문화운동	
14	IV. 철학-종교교육의 현실과 미래	(12) 통일한국과 땅 끝을 위한 실천교육	

흡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 배경에는 이런 인재를 길러내는 제도도 미흡하고 실제로 대학에
서도 이런 교과교육 보다는 교과내용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체계적인 교육실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과 관련된 문제를 들 수 있다.

현재 교육실습은 해당 실습학교에 동의서 발부받아 대학에 제출한 다음 사전교육을 거쳐
4주 동안 현장실습을 다녀온 다음 평가를 통하여 환류를 받고 종료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종교교사양성에서 교육실습 역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가장 먼저, 종교예비
교사가 교육실습을 하기 위해 본인의 종교적 배경과 무관하게 교육실습 동의서를 받기가
어렵다. 둘째 교육실습에 따른 충실한 수업, 학생지도 및 교육행정, 학급경영 등에 대한 실
습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셋째, 실습 중간에 현장지도 및 실습 종료
후 평가를 통한 환류체계도 미흡한 편이다. 정부는 2009년도 입학자부터 2회(4학점이상) 교
육실습을 요청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종교예비교사의 교육실습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관련
조건정비가 요구된다.

넷째, 교원양성 과정에 대한 평가체제의 미흡을 들 수 있다. 교원양성대학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사범대학, 비사범계, 교육대학원 등 단위 교육기관별로 이뤄져 왔다. 그러나 특정 교과위주의 평가 즉, 종교교사양성에 대한 평가는 아직 수행되지 않았다. 물론 단위 학과별 평가는 수행된 바 있다. 이는 교사양성만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에서라기보다는 종교계 학과 학문영역 또는 단위 학과별 평가 계획에 따라 이뤄진 것이지 교원양성에 대한 평가만을 목적으로 한 바는 없다. 그러나 종교 교과를 담당할 교사양성에 대해서도 단위 교육기관별 학문 분야별로 평가가 이뤄짐으로써 발전을 위한 전기 마련이 절실하다. 그동안 한국교육개발원에 의한 수차례의 평가가 진행된바 있는데 교직과정에 대한 평가(2002년)가 그것을 일부 반영해주고 있다²³⁾.

한편 2005년도 교육대학원 평가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교과교육 관련 과목의 개설비율의 저조, 수업운영의 충실성 미흡, 교과교육 전공교육대학원 전공교수의 미확보, 교수진 담당 과목의 전공일치도 저조, 교육시설 및 행·재정 지원의 미흡, 원생에 대한 직접교육비 투자 및 장학금 지급 등에서 개선 보완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²⁴⁾. 비록 이상의 평가 결과는 교직과정 전반에 걸친 결과이지만 종교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사양성과정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된다.

III. 발전 방안

이미 선행연구를 통해서 종교교사 양성과정에 문제점으로 1) 기본이수과목과 대체과목의 상호 교환기준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대체 과목이 종교교사양성 프로그램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2) 기본이수과목과 그에 대한 대체과목의 내용이 이질적이기 때문에 기본이수과목을 이수한 종교교사 지망생과 대체과목을 이수한 종교교사 지망생 사이에 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다. 3) 종교교사양성체제가 대학별로 전공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²⁵⁾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 이제 교사양성에 중점을 이루는 것 중의 하나인 제도와 교육과정 측면에서 발전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종교교사양성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제도적인 면에서 종교교사 양성은

23) 한국교육개발원, 『2002년 일반대학 교직과정 평가 결과보고서』(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02), 187쪽에 의하면 교육과정편성에서 전공교과 기본이수과목 운영에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교과교육학 과목의 확대, 교과교육전공자들에 의한 강의, 전공교과목의 기본이수과목에서 대부분 법정 한도인 5개 강좌만 개설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현장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강좌는 개설되지 못하고 있고 학교현장과 연계하여 공통이수기준을 개발할 필요 있으며 교육실습지도에 대한 체계적인 절차를 요구됨, (위 책, 340-343쪽)

24) 홍영란, 『2005년도 교육대학원 평가 사업 종합보고서』(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05), 75쪽.

25) 강돈구 외, 『종교교육의 현황과 개선방안』(서울: 문화관광부·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59-60쪽.

모순구조를 가지고 있다.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국가가 부여하는 종교 교사자격증은 특정한 종교를 위주로 하는 종교교사 자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교과서 개발은 실제로 종교(○○교)로 개발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종교를 전제로 한 종교교사 양성이 불가피하다면 ‘종교’(2급정교사)가 ‘종교(○○종교, 2급정교사)라고 되는 것이 적절할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다면 특정 종교를 가르치는 교사양성이 허용되는 명시적인 측면과 실제적인 면이 부조화를 이루는 모순구조는 불가피하다. 설사 특정 종교에 배경을 둔 대학에서 종교교사를 양성한다 할지라도 학생들에게 종교에 대해 균형 잡힌 교육을 기대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도적인 면에서 종교교사 양성구조가 갖는 모순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어쩌면 우리나라 종교교육 전반의 문제점과 패를 같이 하는 문제로 비쳐진다. 적어도 학교교육에서 추구하는 교과로서 종교과목이 갖는 성격, 입시제도, 종교문화, 등 전반에 걸쳐 중층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원양성을 허가해주는 기준도 교과교육 관련 교원, 양성기관의 교육과정, 교육실습 및 제반 조건을 고려해서 재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종교교사 양성과정에 표준화된 교육과정 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중등교원 양성과정에서 대학 간에 완벽한 일치를 추구하기는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일치점을 확인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종교교사의 경우는 대학 간에 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런 배경에는 특정 종교에 배경을 둔 대학에서 특정 종교위주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다 보니 불가피한 현상이다. 그렇다보니 엄밀히 말하면 종교교사라고 보다는 ○○교를 가르치는 종교교사라고 하는 것이 적절할지 모른다. 그러나 학교현장은 다종교적 배경을 지닌 학생이 존재할뿐더러 이 교과를 학생의 진정한 종교성 함양보다는 선교나 포교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심지어 기본이수 과목마저 대체과목으로 이수하면서 전혀 이질적인 성격의 교과목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은 본래 취지에 부합되지도 않고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그러므로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개발해서 적어도 기본이수 과목, 교과교육영역, 교과내용간의 균형을 이룸으로써 균형 잡힌 교육과정의 운영을 통하여 종교교사 양성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균형 잡힌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교사양성 대학과 중등학교 현장의 연계의 필요성을 두고 하는 제언이다. 종교교사 양성기관에서는 물론 중등학교현장에서도 종교학적 접근과 종교 신앙적 접근에 균형 잡힌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 정부가 제시한 교육과정과 중등학교 현장 및 교사양성기관간에 일치된 종교교육 모형을 찾기가 어렵다. 정부가 제시한 교양과목으로서 종교 교육과정과 현장의 실제 교육과 교사양성 대학 간에 함목적적인 일관성을 유지해야 교원양성에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다. 요컨대 현재 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학교 현장 그리고 종교 교사양성 기관 간에 상호 어느 정도 일치된 모형아래 운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종교 교과교육 영역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교과교육학은 학교에서 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학문²⁶⁾이라면 그 연구 영역에도 다양한 방

안이 제시될 수 있다. 권재술(1999)의 모형에 의하면 교과교육학의 하위 연구주제로는 종교 교과교육의 역사, 교육목적,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수-학습자료, 교육평가 등이 제기될 수 있고 김종건(1996)은 연구대상(교사, 행정가, 교사, 학생), 연구방법(문헌, 조사, 실험, 개발연구), 연구내용(교육과정, 교재, 교수방법, 교사양성, 연수, 행재정)에 따른 다양한 영역이 가능함을 제시하고 있다²⁷⁾. 종교교과교육 역시 이렇게 접근한다면 적어도 현재 이뤄지고 있는 ‘종교교과교육론’, ‘종교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에 적용해봄직하다. 물론 교원자격 관련 규정에 의하면 무엇을 어떤 내용으로 해야 하는가에 대한 개략적인 언급이 있다. 예를 들면, 교과교육은 교과교육의 역사적 배경, 교과교육의 목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분석 등 교과교육 전반에 관하여 연구한다.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은 교과의 성격, 중고등학교 교재분석, 수업지도안의 작성, 교수방법 등 교과지도의 실제 경험을 쌓게 한다.²⁸⁾ 적어도 이런 규정에 대한 논의를 기초로 하여 교과교육 영역에 대한 워크숍과 연구, 교재개발, 인적 개발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교육실습에 대한 체계화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요구된다. 비단 종교교사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교원양성과정에 교육현장실습은 매우 중요한 과정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종교교사 양성과정에서 교육실습을 보다 효율적이면서도 합목적적으로 운영하려면 실습학교 배정, 실습학교의 교육실습, 순회지도, 평가, 행·재정적인 지원 등에 대하여 해당 실습교 또는 관련 교육청과 대학 간에 긴밀한 협조와 유기적인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

여섯째, 종교교사 양성과정에 대한 평가체제의 정비가 요구된다. 그동안 교직과정에 대한 평가는 이뤄진 바 있으나 특정 표시과목 교사양성을 위주로 한 평가는 수행된 바 없다. 물론 단위학과별 평가를 통해 이뤄진 적은 있다. 그러나 앞으로 종교교사 양성 기관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통하여 발전적 방향모색에 계기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종교교사양성 기관의 인적 물적, 프로그램, 제반 사항을 확인하고 발전적 전기를 마련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하튼 종교 교사의 경우도 정부가 부여하는 공인된 교사 자격을 부여하는 만큼 어떤 형태로든 평가체제는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교원 자격검정과 관련하여 해당 양성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검정위원회 등을 활성화함으로써 자체적으로 교원양성과정을 점검해보는 한 방법이 될 수 도 있을 것이다. 끝으로 교사양성 과정에 대한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교사교육과 관련된 연구를 주목적으로 하는 한국교원교육학회가 구성되어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종교교사양성과정에 대한 연구는 한국종교교육학회도 그 부담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 한국종교교육학회가 적어도 종교교육 관련 연구의 전문성을 보다 담지하려면 종교교사 양성을 비롯한 중등학교 등 현장 중심

26) 이태욱 외, 『교과교육 연구 활성화 방안연구』 (서울: 한국교원대부설 교과교육공동연구소, 2001), 4쪽.

27) 위의 책, 8쪽.

28) 교육인적 자원부,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2008), 48쪽.

의 종교교육에 대한 연구를 축적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교교사양성과정에서 대한 연구는 비단 대학에 국한되는 것만은 아니다. 여기에는 양성기관은 물론, 중등학교, 종교단체, 학회, 정부의 관련 부서 등이 참여하는 형태가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종교교사 관련 연구에 정부나 국가단위의 제도적인 면, 단위 양성기관의 프로그램, 중등학교 현장과의 관련된 부분(교육과정, 교육실습, 교사임용, 교과교육 등)을 유기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IV. 결 론

이 논문은 종교교사 양성과정의 실태와 개선방안을 모색할 목적으로 현행 법규 제도적인 측면과 실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으로 나눠서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종교교사양성은 종교관련 학과에서 교직과정을 통해서, ○○교육과를 통해서 교육대학원의 종교교육전공 등 세 가지 통로를 거쳐 이뤄지고 있다. 어느 경우든 관련 규정에 의해 현재는 전공(42학점-기본이수과목 5과목 14학점이상 포함)+교직(20)을 기본적으로 요구받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는 보다 강화된 프로그램으로 개편될 것이다. 이런 조건을 통해 종교교사양성 기관으로 인가를 받은 기관은 대략 36개 기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종교교사양성 과정에 문제점으로는 표준화된 교육과정의 미흡, 교과교육 영역, 교육실습, 평가체제 등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이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적인 면에서 종교교사양성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제도적인 면에서 종교교사양성은 모순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를테면 특정 종교를 가르치는 교사양성이 허용되는 명시적인 측면과 실제적인 면이 부조화를 이루는 모순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정 종교에 배경을 둔 대학에서 이런 부조화를 수용한 채 종교교사를 양성한다면 학생들에게 종교에 대해 균형 잡힌 교육을 기대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그러므로 제도적인 면에서 교원양성을 허가해주는 기준을 비롯한 제 조건에 대하여 중등학교 현장, 관련 양성기관, 학회가 공동으로 교원양성 관련 제도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제정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종교교사 양성과정에 표준화된 교육과정 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종교교사 양성 대학 간 교육과정에 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런 배경에는 특정 종교에 배경을 둔 대학에서 특정 종교위주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다 보니 불가피한 현상이다. 학교현장은 다종교적 배경을 지닌 학생이 존재할뿐더러 이 교과를 학생의 건전한 종교성 함양보다는 선교나 포교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심지어 기본이수과목마저 대체과목으로 이수하면서 전혀 이질적인 성격의 교과목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은 본래 취지에 부합되지도 않고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그러므로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개발해서 적어도 기본이수 과목, 교과교육영역, 교과내용간

의 균형을 이룸으로써 균형 잡힌 교육과정의 운영을 통하여 종교교사 양성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사양성 대학과 중등학교 현장의 연계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종교교사 양성기관에서는 물론 중등학교현장에서도 종교학적 접근과 종교 신앙적 접근에 균형 잡힌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 정부가 제시한 교육과정과 중등학교 현장 및 교사양성기관간에 일치된 종교교육 모형을 찾기가 어렵다. 정부가 제시한 교양과목으로서 종교 교육과정과 현장의 실제 교육과 교사양성 대학 간에 함목적적인 일관성을 유지해야 교원양성에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다. 요컨대 현재 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현장 그리고 교사양성기관 간에 상호 이질적으로 운영되는 점은 시급히 극복되어야 할 과제 중의 하나이다.

넷째, 종교 교과교육 영역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교과교육학은 학교에서 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분야라면 종교교과교육 영역은 과목 담당 교수의 양성, 적절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등이 요구된다. 관련 규정에 의하면 무엇을 어떤 내용으로 해야 하는가에 대한 개략적인 언급이 있지만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인력이 부재하고 이런 인재를 양성하는 제도 역시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교과교육영역을 담당하는 담당교수 양성,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교육실습에 대한 체계화된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이 요구된다. 비단 종교교사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교원양성과정에 교육현장실습은 매우 중요한 과정 중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교사 양성과정에 교육실습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도 되지 않은 실정인데다 타 교과와 교육실습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비춰보면 종교교사양성 역시 예외가 아닐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종교교사 양성과정에서 교육실습을 보다 효율적이면서도 함목적적으로 운영되려면 실습학교 배정, 실습학교의 교육실습, 순회지도, 평가, 행정적인 지원 등에 대하여 해당 실습교 또는 관련 교육청과 대학 간에 긴밀한 협조와 유기적인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

여섯째, 종교교사 양성과정에 대한 평가체제 정비가 요구된다. 종교교사 양성 기관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통하여 종교교사양성 기관의 인적 물적, 프로그램, 제반 사항을 확인하고 발전적 전기가 되도록 하는데 도움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교원 자격검정과 관련해서는 해당 양성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검정위원회 등을 활성화함으로써 자체적으로 교원양성 과정을 점검해보는 한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끝으로 교사양성과정에 대한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교사교육과 관련된 연구를 담당하는 한국교원교육학회가 있지만 종교교사 양성과정에 대한 연구는 한국종교교육학회도 그 부담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 그러나 종교교사양성과정에 대한 연구는 비단 대학에 국한되는 것만은 아니고 양성기관은 물론, 중등학교, 종교단체, 학회, 정부의 관련 부서 등이 공동 참여하는 형태도 고려해볼직 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종교교사 관련 연구에 정부나 국가단위의 제도적인 면, 단위 양성기관의 프로그램, 중등학교 현장과의 관련된 부분(교육과정, 교육실습, 교사임용, 교과교육 등)을 유기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경상대학교 중등교육연구센터, 『제7차 교육과정과 교과서』. 서울: 교육과학사, 2001.
-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15) 교양. 서울: 교육부, 2001.
- 교육인적 자원부, 『2007 교원자격검정실무편람』.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2007.
- , 『교원양성체제개선방안』. 서울: 교육인적 자원부, 2006.
- ,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하는 교직발전종합방안』. 서울: 교육인적 자원부, 2001.
- , 『교원양성체제 개편종합방안 시안』. 서울: 교육인적 자원부, 2004.
- , 『2003년도 사범대학 평가결과 우수사례 발표 자료』, 서울: 교육부, 2004.
- , 『2007 교육통계연보』,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인적 자원부, 2007.
- ,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 지정기준」. 서울: 교육인적 자원부, 2008.
- 김철주 · 고병철, 「종교교사양성 및 연수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21-2 (서울: 한국교원교육학회, 2004).
- 김귀성, 「한국중등학교에 있어서 종교교육의 현황과 과제」 『종교교육학연구』 3(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1997).
- , 「제7차 교육과정과 종교교과서 개발」 『종교연구』 28(서울: 한국종교학회, 2002).
- , 「학교 교육과정에서 종교교육의 개념모형 탐색」 『대순사상논총』 18(포천: 대진대학교, 2004).
- , 「종교교재개발의 과제와 전망」 『종교교육학연구』 22(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6).
- 강돈구 외, 『종교교육의 현황과 개선방안』 서울: 문화관광부 ·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 오인택, 『한국기독교 교육학 문헌목록』 (1945-1980)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83.
- 윤종건, 「한국교원정책의 쟁점과 교육의 질 향상 과제」 『한국교원교육연구』 18-3(서울: 한국교원교육학회, 2001).
- 이태옥 외, 『교과교육연구 활성화 방안연구』 서울: 한국교원대학교부설 교과교육공동연구소, 2001)
- 주영주 외, 『이화교원교육기준 개발연구』 서울: 이화여자 대학교 사범대학, 2006.
- 조영관, 「한국 가톨릭계 중등학교 종교교육의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전공과목의 교사자격 기준개발과 평가 영역 상세화 및 수업능력 평가를 위한 워크숍 자료집』 서울: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2008. 1. 11
- 한국교육학회, 『교사양성 교육과정의 전문성 확보』 서울: 한국교육학회, 1997.
- 한국교육개발원, 『2008. 9년 일반대학 교직과정 평가 편람(안)토론회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 , 『2002년도 일반대학 교직과정 평가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2002. 12
-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 편, 『한국신학 관계석 · 박사학위논문 목록집(1945-1988)』, 도서출판 나눔, 1988.

홍영란, 『2005년도 교육대학원 평가사업 학교별 평가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2005.

홍후조, 「선택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서 ‘과목’ 선택교과영역 선택」 『교육과정연구』 19-2
(서울: 한국교육과정학회, 2001).

대법원판례(1989. 9. 26, 선고87도519 판결)

교육인적 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가톨릭대학교 홈페이지, 감리교신학대학교 홈페이지, 강남대학교 홈페이지,

나사렛대학교 홈페이지, 대구가톨릭대학교 홈페이지, 대진대학교 홈페이지,

동국대학교 홈페이지(<http://www.dku.ac.kr>), 목원대학교 홈페이지, 삼육대학교 홈페이지,

서강대학교 홈페이지(<http://www.sogang.ac.kr>), 서울대학교 홈페이지, 서울신학대학교 홈페이지

서울장신대학 홈페이지, 성결대학교 홈페이지, 연세대학교 홈페이지, 원광대학교 홈페이지

위덕대학교 홈페이지, 이화여자대학교 홈페이지, 장로회신학대학교 홈페이지

전주대학교 홈페이지, 총신대학교 홈페이지, 침례회신학대학교 홈페이지, 한남대학교 홈페이지

한남대학교 홈페이지, 한신대학교 홈페이지, 한일장신대학교 홈페이지, 협성대학교 홈페이지

원고접수: 2008년 5월 1일 1차심사: 6월 2일 게재승인일: 6월 11일

연구자 소개: 김귀성

① 전공: 교육철학 및 교육사, 종교교육 / 소속: 원광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② 관심영역: 종교교육, 교육철학 및 교육사

③ 주요논저: 『현대교육사상』 (공저), 『생활이 바로 교육이다』 (역), 『教育のなかの宗教』 (공저),
『한국종교의 인격교육』 (공저), 『타오싱쯔 생활교육론의 전개』 (저),
『17세기 조선에 소개된 서구교육』 (역), 『동아시아 근대교육사상가론』 (공저)

④ E-mail: gskim@Wonkwang.ac.kr

Abstract

Current actual condition on the teacher training system of “subject of religion” and its improvement

Kim, Gui Sung

WonKwang University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is the current actual condition on the teacher training system of “subject of religion” and present its improvement. There are three courses on the teacher training system of “subject of religion”: course of teaching profession in university, related with ○○ department of education, majored on religious education i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ny courses requirement of teacher needs major subject+ teaching profession subject. About 36 institutions are authorized by government as a Institution for teacher training system of “subject of religion”. Now tasks of such institutions are insufficient of standard curriculum, subject matter, teaching practice, evaluation system etc. In oder to overcome such an problem, needs to establish a system on the training “subject of religion”, development of standard curriculum, cooperation with secondary schools with universities, activate the subject matter area, development and operate the systematic teaching practice program, establishment evaluation system, research and development teacher training system of “subject of religion.”

Key words : Religious teacher, Teacher training. Process of religious teacher training, Improvement for training of religious teacher in secondaryschools of Korea.